

글로벌 디지털 머니 하나로 통한다... 김정태의 '선즉제인'

(하나금융)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

새해 새 전략... 쏘앗 (So What)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선즉제인(先則制人)'.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 화두로 던진 말이다. 사기(史期)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로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금융으로 성장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올해 하나금융그룹의 '백년 대계'를 설계하고 있다. 답은 '사람'과 '공간'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4년 넘게 꾸준히 준비해 온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Global Loyalty Network)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의 지휘 아래 준비해 온 글로벌 사업의 '리허설'은 끝나고, 하나금융그룹과 계열사의 본 공연에 관심이 쏠린다.

◆ 글로벌 디지털 뱅킹시장 진출

김 회장은 "다양한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지만 결국 결제와 어떻게 연계되느냐가 성공의 관건인데 GLN을 통해 해외 어디든 간편하게 결제된다면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LN은 전 세계 금융회사, 유통회사, 포

인트사업자와 함께 디지털머니를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김 회장의 구상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는 "글로벌 ICT 기업인 라인(LINE)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뱅크 사업을 시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하나로 KEB하나은행과 라인은 지난해 10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올해 디지털 뱅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대의 트렌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코닥과 노키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몰락한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아직 핀테크기업이나 인터넷은행이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우리를 따라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가"며 물음표(?)를 던졌다. 핀테크 인터넷 은행을 뛰어넘는 하나금융을 강조한 것이다.

◆ "당연함은 버리고, 시장 리드 금융그룹으로"

김 회장은 '2019년 부의 대질벽'(헤리먼트, 2017)이란 책을 소개한 지난해 신년사를 다시 한 번 꺼냈다. 위기의 순간, 지금 하나금융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도전'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당연함'에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란 말을 꺼내면서 "잊사

람이 시키는 거니까,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는 배경이나 전제조건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현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끊임 없이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을 리드하는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19세기 초 미국 뉴욕의 벤자민 마살과 동료 상인들은 '블랙 볼 라인(Black Ball Line)'이란 정기선 운항을 시작해 승객이나 화물에 상관없이 매월 정

로 들었다. 이 회사는 휴대폰으로 약품의 진위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제약회사에게는 위조약품 유통이 줄어 매출액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어느 지역에 어떤 약품이 판매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빅데이터 모델까지 구축했다.

'위조지폐 감식기가 있다면 위조약 감식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모델이지만 서비스는 혁신적이었다.

김 회장은 "스프록실 사례처럼 큰 자본이나 새로운 기술 없이도 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니즈를 잘 간파하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그룹핑을 통해 파악이 용이한데 예를 들어 세대별, 고령세대, 베이비부부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도 있지만, 웰리

빙(웰다잉), 싱글족과 같이 공통의 관심사로도 그룹핑을 할 수 있다. 각 그룹별 사회적 니즈를 파악하고, 개인적 차이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사의 협업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돼지 17마리의 유산 동화를 언급하면서 "인간이 최고의 영장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희생정신과 협업'이라며 "전 그룹사가 서로에게 '18번째 돼지'가 돼 희생하고 양보한다면 협업이 밑거름이 돼 모두가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M&A 등 추진
핀테크 인터넷은행 뛰어넘는 금융그룹으로
혁신적인 사회적 니즈 발굴도 적극 나서야
개인 차이에 대한 마케팅으로 효과 극대화

해진 날짜에 출항, 생산자와 상인들의 원자재 확보 시점과 생산물 출하 시점에 대한 예측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결국 뉴욕이 인근 필라델피아 등 경쟁항구를 제치고 미국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 처럼 새로운 규칙과 프레임을 통해 시장의 판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니즈 발굴에도 적극 나서자고 주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스프록실(Sproxil)이라는 회사의 성공사례를 예

로 하는 니즈를 잘 간파하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그룹핑을 통해 파악이 용이한데 예를 들어 세대별, 고령세대, 베이비부부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도 있지만, 웰리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지난 2일 KB국민은행 목동파리공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첫 행보 '직원 만남'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새해 첫 행사로 계열사 영업 현장을 찾아 고객 및 직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3일 KB금융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전일 은행·증권·손해보험·생명보험이 함께 영업하고 있는 여의도영업부를 시작으로 기업투자금융(CIB)을 담당하는 여의도 대기업금융센터,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목동 PB센터 등을 방문했다. 또 디지털 혁신의 선봉에서 있는 IT센터와 디지털

관련 부서도 차례로 방문했다. 평소에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한 윤 회장의 이날 깜짝 방문에 고객과 직원들이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영업 현장 방문은 고객 및 직원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윤 회장의 의지로 새해 첫날부터 실시됐다"며 "올해도 KB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유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해부터 꼬이는 DGB... 강면욱 영입 불발

공직자 취업제한에 자산운용 대표 무산 DGB-하이포 시스템 검증문제 지적

DGB금융그룹의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새해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단행된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 선임과 지주 및 은행의 임원 승진인사 과정에서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김태오 회장이 취임하면서 도입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DGB-하이포(HIPO·High potential)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자금운용본부장의 선임이 보류됐다. 지난 2017년 7월 국민연금 자금운용본부장에서 사임한 강 전 본부장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DGB자산운용은 DGB금융그룹이 2016년 LS자산운용을 인수해 만든 신설



강면욱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 내정자. /DGB금융그룹

법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다. 앞서 주주총회는 지난달 31일로 계획돼 규정을 피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던 강 전 본부장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자산운용대표를 맡는다는 점,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12월 31일 관보에 고시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달 27일 DGB금융지주와 은행 임원 승진 인사 5명중 2명을 교체했다. 당시 DGB금

용그룹은 인사 발표 전날 승진 내정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진사실을 통보했지만 다음날 이들이 전임회장 겸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한 것이다.

때문에 김태오 그룹회장이 취임하면서 도입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DGB-하이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태오 그룹 회장은 DGB-하이포시스템을 도입해 인사부분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자금조성 등으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DGB금융그룹에 인사 관련 잡음이 계속돼 지역 여론마저 악화될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DGB 대구은행 이사회는 3일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지주에 추천할 행정후보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장 후보 자격요건은 ▲최근 3년 이내 퇴임 ▲금융권 임원 경력 3년 이상 ▲지주 은행사업본부 임원 각각 1개 이상 경험(P&L과 경영관리) ▲지주나 계열사 임원 경험 등 4가지다.

/사유리 기자 yul115@

KEB하나은행

'황금드림 예금' 한시판매

KEB하나은행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황금드림 정기예금 한시판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판 정기예금의 총 판매 한도는 1조원

으로 한도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특판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이며, 적용금리는 1년제 최고 연 2.3%, 1년 6개월제는 최고 연 2.4%이다.

또한, 판매기간 중 '황금드림 정기예금' 가입손님 2019명에게 추첨을 통해 행운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 '잼라이브 퀴즈쇼'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모바일 앱 '잼라이브'를 통해 퀴즈쇼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잼라이브 퀴즈쇼 '우리은행' 편은 오는 6일 밤 9시 잼라이브 앱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12개 문제를 모두 맞춘 참가자에게는 1899만원을 공동배분하고, 12번째 문제를 맞춘 참가자 중 1명을 추첨해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19만원 이상 금액으로 제공된다. 우수상금 1899만원은

우리은행의 창립연도인 1899년을, 1인 특별상금 120만원은 창립 120주년의 의미를 담았다.

또 퀴즈쇼가 진행되는 동안 앱 화면에 나타나는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 기념 이벤트' 이미지를 캡처하면 추첨을 통해 1899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안상미 기자